

2010 2월호 제419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 월간 주부교실 2월호

발행일 : 2010. 2.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운자  
편집인 : 박인례  
담당 : 원혜진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박행환

비매품

## 주부교실

2010  
통권 제419호 2

- 생각해봅시다 4 남성들이여, 사자를 닮아다오 / 김애옥
- 가격조사 6 설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5% 올라
- 의식조사 8 가격표시제, 인지도 여전히 낮아
- 실태조사 10 단위가격 표시율 낮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을 낮아
-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 / 오성희
- 소비자뉴스 14 소비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로 통합
- 식품뉴스 16 2~3년 숙성 된장, 최고의 맛과 품질 지녀
- 수필 18 봄이 오면 / 이세기
- 생활정보 20 생활 속의 원자력②
- 환경체험글짓기 22 1.5℃ Down의 날까지 / 조이선
- 여행정보 24 봄 향기 찾아 멋스러운 한옥마을로!
- 지부소식 25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 주부교실게시판 34 『세계 물의 날 기념 대토론회』 및 『주부대학 신입생 모집』

<표지사진 : 등산반 제23차 정기총회(중앙회, 2010. 2. 19), 시내버스 환경개선을 위한 모니터단  
발대식(대전광역시지부, 2010. 1. 13)>



## 남성들이여, 사자를 닮아다오

김 애 옥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 사파리

투어중 목둘레에 멧진 갈기를 두른 수사자를 본 적이 있다. 그늘 아래 반쯤 감긴 눈으로 앉아 있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라이언 킹하고는 웬지 좀 연관 짓기가 힘들었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호랑이와 대적할만한 밀림의 왕 이미지와도 거리가 있어 보였다.

물론 탄자니아 세랑게티의 대자연속을 누비며 사냥을 하고, 무리행동을 해야만 하는 환경 자체가 될 수 없는 여건이지만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기엔 나약한 캐릭터처럼 느껴졌다.

야생의 사자세계에서 수사자는 거의 사냥을 하지 않고도 마치 와치천하(臥治天下)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가 낳은 새끼일지라도, 먹이나 짝짓기의 대상 앞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수사자가 사냥의 뒷전에 머무르는 이유는 종족 보존의 기능 정도를 하는 것만으로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룰에 의해서라는 추정설이 있긴 하다. 이러한 수사자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귀여운 면도

없지 않다. 우리들의 주변에 이런 수사자를 보기가 좀체 힘들어서인지 몰라도 말이다.

직접 사냥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고, 다른 무리들로부터 종족을 지켜내는 역할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냥한 먹잇감을 공유할 권리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 세계에서의 순리인지도 모를 일이다.

잠시 눈을 돌려 현대를 사는 남성들과 이 수사자를 비교해 보자.

사냥에서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종족 보존을 위해 쏟아내는 땀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등이 오늘날의 남성과 수사자의 성향과 닮았다.

그런데 현대 남성들은 애나 어른이나 웬지 수사자보다 더 뛰어난 사냥술로 무장되어있고, 그 노력의 양 또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성적 남성다움은 사자에 뒤져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아마도 이런 수사자의 야성보다 다른 면을 앞세우는 우리의 세태나 현실

이 그 근저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남편, 아들들에게 수사자의 본디 위용과 습성을 찾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대사회가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상위의 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세상이 훨씬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는 좀 남자다워야, 우리 여성도 더욱 여성스럽게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해 본다. 물론 애써 찾아놓은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다시 예전으로 회귀 시키려는 바보짓을 논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전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 중 배고픈 선비가 쌀독에 쌀이 떨어지더라도 책 읽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우매한 사람의 얘기를 가끔은 월간지 지면으로라도 보고, 밤늦게 예고 없이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 술상을 내오라는 호기를 부리는 남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반상회 소식도 좀 듣고, 생활비에 찌든 아내의 생일날 모조보석 하나 사와서 허풍이라도 떨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 중에도 한두 사람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파스하고 재미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보며, 수사자 습성 회복하기 캠페인이라도 벌여보면 어떨까 감히 제안해 본다. 이런 방법들이다.

첫째, 사냥해온 먹잇감을 가족들에게 풀어놓을 때만큼이라도 사자의 포효를 일갈할 기회 정도는 줘보자는 거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과다만을 논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치부해 버려 그들의 기를 죽이지

말고, 한껏 그들의 갈기를 멋지게 폼 낼 수 있도록 해줘 보자. 크게 힘들거나 금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질 않는가.

둘째로, 불편해 보이는 털 갈기를 너무 탓하지 말고, 그의 갈퀴가 너무 초라하거나 볼품없어 보이진 않은가 최소한 살펴보고, 거울이라도 비춰주고, 갈퀴에 빗질이라도 좀 해줘 보자는 얘기다. 양복 깃이라도 바로 세워주고, 광을 낼 재주는 없더라도 구두의 흠먼지 정도는 털어줘서 다른 사자를 만났을 때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자로 만들어보자.

셋째로, 그들이 가족을 위한 사냥에만 몰두하여 자기 자신이 사자란 것도 모르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그들이 사자이고 가끔은 호기를 부릴 수 있는 라이언 킹이라는 사실도 좀 알려줘 보자. 개인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혼자만의 고독을 즐길 줄도 아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물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본적은 없지만- 흥내를 내보라는 권유도 해보자.

이 외에도 음양쌍보(陰陽雙補)하듯 우리 여성이 베풀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배려해보자.

왕으로 모셔야 나도 왕비 대접을 받는다는 진부한 논리를 떠나서 그냥, 삶이 좀 예전처럼 풍요롭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으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우리 여성들이 아니면 남성들 스스로는 해결치 못하리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남성들이여, 부디 사자를 닮아다오!” 이렇게 외쳐보자. ■

# 설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5% 올라

- 4인 가족 성수품 구입비용 233,657원 -

연초부터 물가가 들쭉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에서는 2월 1일~2일 서울시내 25개구의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총 100곳에서 설 대비 주요 성수품 22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 설 성수품 물가동향

- 축산물과 수산물이 가격 상승세 주도

작년에 비하여 가격이 오른 품목이 18개 품목이었고, 내린 품목은 8개 품목으로 나타나 성수품 전반적으로 가격상승세를 보였다. 양파, 고사리, 참기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수산물 등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계란, 밀가루, 두부, 국산꽃감, 밤 등은 안정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품목은 시금치(77.2%)였고, 배(26.9%), 수입도라지(26.8%), 쇠고기(25.9%), 황태포(20.6%), 수입간혹두(18.9%) 등이 작년보다 가격이 대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률이 가장 큰 품목은 계란(-14.3%)였고, 밀가루(12.0%), 두부(-11.7%), 국산꽃감(-10.5%), 밤(-6.3%), 돼지고기(-2.0%), 국산간혹두(-0.6%), 가래떡(-0.5%) 순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조>

### ◆ 설 기본 차례상 비용(4인 가족 기준)

- 평균 233,657원, 작년보다 9.5% 올라

주요 성수 품목 22개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구입비용은 233,657원이었고, 이를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백화점 322,474원, 할인마트가 226,991원, 슈퍼마켓 212,768원, 재래시장 184,156원의 순서로 재래시장에서의 구입가격이 백화점보다 거의 절반 가격인 138,318원(42.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 업체별 설 기본 차례상 비용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총평균가는 9.5% 상승하였고, 재래시장 14.1%, 백화점은 13.2%, 슈퍼마켓 8.8%, 할인마트는 7.3%순으로 상승하였다. <표2 참조>

### ◆ 설 성수품 업체별 평균가격 비교

- 재래시장이 가장 저렴, 업체별 질적 차이 고려한 구매 태도 필요

설성수품 평균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업

태별로 비교해보면, 백화점이 배,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에서 최고가가 가장 많았고, 국산간혹두와 밀가루 2품목은 슈퍼마켓이 최고가였다.

최저가가 가장 많은 곳은 재래시장으로 몇 개 품목을 제외한 농수축산물 대부분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과일이나 쇠고기, 조기 등 농수축산물의 질은 업체별로 차이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 가격비교만을 하기 보다는 질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지역별 4인 가족 성수품 구입비용 비교

- 가격차 최대 25.1%, 대구가 가장 비싸

지역별로 4인 가족 성수품 구입비용을 비교해보면 대구 242,611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nam이 190,509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격 차이는 21.5%였다. 강원 235,082원, 서울 233,657원, 인천 232,308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살펴보면 인천 18.1%로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충남 15.2%, 강원 14.0%, 광주 12.9%, 울산 12.7%, 전남 10.6%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

<표1> 주요품목별 상승률·하락률 비교표

오른 품목		내린 품목	
시금치(400g)	77.2	계란(일반란, 1판)	-14.3
배(신고,700g,1개)	26.9	밀가루(2.5Kg)	-12.0
도라지(수입산,400g)	26.8	두부(판 두부 1모)	-11.7
쇠고기(등심,100g)	25.9	국산꽃감	-10.5
황태포(마리,40cm)	20.6	밤(국산 1kg)	-6.3
간혹두(수입,500g)	18.9	돼지고기(목심,100kg)	-2.0
사과(부사,300g, 1개)	16.8	간혹두(국산, 500g)	-0.6
닭고기(1kg,국산)	16.3	가래떡(2kg)	-0.5
고사리(수입산,400g)	11.6	대추(국산, 300g)	1.6

<표2> 업체별 설 기본 차례상 비용 : 4인 가족

업체별	총평균가	백화점	할인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2010년	233,657	322,474	226,991	212,768	184,156
2009년	213,375	284,895	211,645	195,500	161,462
등락률(%)	9.5	13.2	7.3	8.8	14.1

과 경기도는 2.0%로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결론

주요 성수품 22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시금치, 배, 쇠고기, 황태포 등이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4인 가족 기준 성수품 구입비용이 작년에 비해 9.5%나 올라 물가 상승률이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공요금 인상 등 연초에 들쭉이는 물가가 경기회복과 맞물리면서 자칫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올해는 기초단체장 선거도 있어 설 명절물가가 향후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물가감시활동이 필요하다.

# 가격표시제, 인지도 여전히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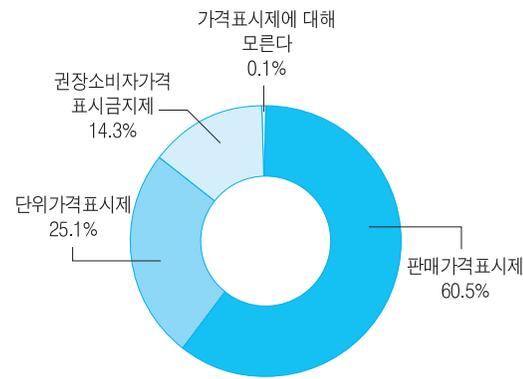
- 서울시 거주 20~60대 남녀 1,000명 대상 -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및 구매에 미치는 영향 등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식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 '가격표시제' 인지도 낮은 편, 대중매체 통해 주로 알게 돼

가격표시제 종류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판매가격표시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참조>

67.5%의 응답자가 '판매가격표시제'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전업주부가 가장 많이 알고 있



<가격표시제 인지도>

었다. '단위가격표시제'의 경우 응답자 55.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판매가격표시제보다 인지도가 훨씬 낮았으며 전업주부에게서 인지도가 높았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9.8%밖에 되지 않았고, 기술직 종사자에게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가격표시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나 라디오'가 30.5%로 가장 높았고, '신문' 21.2%, '기타' 19.1%, '인터넷' 18.4%, '홍보 전단지' 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업체마다 단위·규격 등 달라 물품 구매시 가격비교 어려워

가격표시제를 잘하는 유통업체를 살펴보면 대형할인매장 47.8%, 백화점 35.0%, 인터넷쇼핑몰 6.7%, 대규모전문매장 5.5%, 동네슈퍼마켓 3.4%, 재래시장 1.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통업체는 '대형할인

매장'이 76.7%로 가장 높았다.

물품 구매시 업소별 가격비교 여부를 살펴보면 가격비교를 '대체로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자가 54.0%로 가장 높았고, '반드시 한다' 23.8%, '하지 않는다' 18.2%, '전혀 하지 않는다' 4.0% 순으로 응답자 77.8%가 가격비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자 했다.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응답자 60.3%가 '브랜드나 회사마다 단위나 규격이 다르고, 모든 품목의 가격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가격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으로는 인터넷활용 40.3%, 홍보전단지 26.4%, 발품을 팔아서 19.4% 순으로 나타났다.

##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위해 필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어

판매가격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94.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이유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판매업소에서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53.7%로 조사되었다. 단위가격표시제의 경우 '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8.9%였고, 필요 이유 역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이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 확대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 '판매업자간의 가격경쟁 활성화로 인한 가격 인하' >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격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 '소비자

에게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방지' > '가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분쟁 심화'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 65.7%, 부정적인 영향 34.4%로 조사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 ◆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 업체간 공정 거래 도모해야

이번 조사결과,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특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홍보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 구매시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구입한 소비자가 많아 판매가격표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품목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격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오히려 가격분쟁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실제 이 제도를 확대 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및 감시활동과 함께 제조·유통업체의 올바른 가격표시제 의무사항 이행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건전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는 물품 구매시 가격표시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국장>

# 단위가격 표시율 낮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을 낮아

- 서울시내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가격표시 의무업체 50곳 대상 -

본회에서는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와 함께 지난해 5월과 10월 1, 2차에 걸쳐 서울시내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가격표시 의무업체 50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했다. 다음은 실태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 단위가격 표시 없는 상품 많고, 표시 단위 식별 어려워

단위가격 품목 표시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전체 조사건수는 3,580건이었고, 그 중 '판매가 미표시' 건수는 9건(0.3%), '단위가격 미표시' 건수는 800건(22.3%)였다. 단위가격 표시 건수 2,780건 중 46건(1.7%)은 단위가격 표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묶음 판매 등의 이유로 표시 단위 식별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조사 결과 총 3,164건 중 판매가는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단위가격 미표시율은 462건(14.6%)이었고, 식별이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2차 표시율을 살펴보면 단위가격 미표시율은 22.3%에서 14.6%로 개선되었고, 식별 불편율도 1.7%에서 0.0%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의류, 식품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을 낮아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품목인 의류를 대상으로 한 판매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1차 조사결과 총 2,673건 중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건수는 1,087건(40.7%)였고, '판매가격 미표시' 건수는 104건(3.9%)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 총 2,741건 중 '권장소비자 표시' 건수는 970건(35.4%)였고, '판매가격 미표시' 건수는 5건(0.2%)로 조사되었다.

1차와 2차 의류 판매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을 살펴보면 권장소비자가격미표시율은 1차 40.7% → 2차 35.4%로 개선되었고, 판매가격 미표시율은 1차 3.9% → 2차 0.2%로 개선되었다.

한편, 식품 및 생필품에 대상으로 판매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1차 조사 결과 총 3,694건 중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건수는 1,238건(33.5%)였으며, 판매가격 미표시건수는 15건(0.4%)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 총 3,125건 중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건수는 553건(17.7%), '판매가격미표시' 건수는 1건(2.2%)로 나타났다.

1차와 2차를 비교해보면 판매가격미표시율은 0.4% → 2.2%로 늘었고, 권장소비자가격표시율은 33.5% → 7.7%로 개선되었다.

### ◆ 결론

조사 결과 의류, 식품 등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가격 미표시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표시단위 식별이 어렵고 표시 단위가 규정과 다른 경우도 있어 가격비교 자체

에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가격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품목의 가격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되지 않고,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커 소비자 혼란 및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지식경제부가 작년 7월부터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33종에서 83종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제품을 의류 전 품목을 포함해 279종으로 확대해 소매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제조·판매 업체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충실한 이행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국장)

가격표시제 이행 우수 업소		
단위가격 표시 의무 우수업소(9곳) <b>업 체 명</b> 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 롯데백화점(본점) 롯데슈퍼(신동아점) 롯데슈퍼(하계동)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이마트(공향점) 이마트(용산) 현대백화점(신촌점) 홈플러스(중계점)	의류 대상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우수업소(6곳) 업체명 <b>업 체 명</b>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클럽(양재점) 롯데백화점(월드점) 신세계백화점(강남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천호점)	식품 및 생필품 대상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우수업소(7곳) 업체명 <b>업 체 명</b> 그랜드마트(약수) 롯데슈퍼(신동아점) 신세계백화점(본점) 섀프라이마트 김스마트(사당) 현대백화점(천호점) AK PLAZA(애경)

## 소비자의 소리

### 의류 쇼핑물, 소비자가 적립금으로 전환한 구입액 환불 거부

**내용** 여성의류 쇼핑물인 A패션몰에서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고, 인터넷 화면상으로 본 옷의 느낌과도 차이가 있어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 뒤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선 적립금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적립금에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른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또 사이즈가 맞지 않아 물품 인수 후 바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적립금 처리를 한 금액에 대해선 환불은 불가하다면서 추가 지급한 비용만큼만 택배비를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패션몰에 소비자가 의류 구입에 대한 반품 처리 후 택배비를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하였고, 단순 포인트로 인한 적립금의 성격과 달라 소비자의 요구대로 잔여 금액을 돌려줘야 함을 알리고 금액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후 소비자가 의류를 반품 처리하였고, 해당 업체는 왕복 택배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즉시 환불 처리하였다.

### 가방 수선 불량으로 반송시, 소비자에게 배송비용 부담 전가

**내용** 몇 년 전에 구입한 악어가방이 너무 커서 명동에 위치한 유명 가죽 수선점인 B 수선점에 가방 크기를 줄이는 리폼을 요청하고 25만원 수리비를 지불하였다. 수리된 물품을 택배로 받아 확인해보니 가방 입구가 너무 좁아 손가락이 들어가기도 어려워 B 수선 전문점에 이의를 제기하니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 물건 보낼 경우 재수리 해주겠다고 하였다. 수선 부주의건인데도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지불하라는 업체의 부당한 요구로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일반적으로 수선 부주의로 인한 물품에 대한 재발송시 업체에서 배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B 수선점에 이를 안내했다. 이에 B 수선점은 택배 발송비용을 소비자에게 납부하라고 한건 아니었으며 단지 설 명절이 끝난 후 택배로 물건을 보낼 경우 택배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자가 빠른 처리를 요구해 쿼서비스로 가방을 발송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에 본회는 수선점에 소비자가 설 명절에 사용하기 위해 리폼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빠른 처리와 함께 쿼서비스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재수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선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빨간 불꽃 나오는 가스레인지, 2회 수리 후에도 계속돼 환불 요청

**내용** 홈쇼핑 통해서 C업체 가스레인지 구입하여 설치 후 가스불을 켜보니 빨간색 불꽃과 소음도 발생돼 A/S를 의뢰하니 빨간불은 나오지만 그릇에 그을림이 붙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교환처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후 빨간불 현상이 계속돼 다시 A/S요청했고, 다른 기사분은 삼발이가 잘못 놓여져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빨간불 현상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빨간불 현상이 확인되고 불꽃의 높낮이도 문제가 있어 교환을 요청하였다. 기사분이 만약 교환제품도 동일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거냐면서 차라리 환불처리를 받으라며 환불해줄 것을 약속하고 갔다. 그러나 A/S기사의 말과 달리 업체 측에선 환불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A/S기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이 환불임을 해당업체에 전달하겠다고만 했지 환불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업체측은 제품의 하자가 아닌데도 소비자가 다양한 이유로 제품 하자를 거듭 주장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환불 처리는 불가하나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란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추후 동일 현상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동일제품으로 교환처리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교환 후에도 동일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무이자 할부로 구입한 싱크대, 이자 붙은 금액으로 결제되고 있어

**내용** 작년 6월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D사의 부엌 싱크대를 구입해 설치하고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였다. 지난해 12월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다 무이자 할부로 구입한 싱크대 결제금액에 이자가 계속 지불되고 있어서 업체에 이의 제기하였다.

이에 업체는 인출된 이자액은 환불해주고, 카드사측과 협의해 올 5월까지 할부 결제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게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이자가 계속 인출되었다. 업체에 또다시 이의 제기하니 인출된 비용을 1월 22일까지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환불되고 있지 않아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 전달하고 소비자가 부담한 이자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업체는 이미 납입 처리된 이자 비용과 이후 5월달까지 청구될 이자금액 전액을 2월 17일까지 환불 처리해 주었다. <오성희 / 본회 소비자상담 실장>

## 소비자뉴스

### 소비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기관의 상담 업무를 통합한 '소비자상담센터'가 5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각 기관의 상담인력을 통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전화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 기관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상담정보는 참여기관이 공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정책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정기관에 전화가 집중돼 전화 연결이 어려웠지만, 상담센터 운영 이후엔 컴퓨터시스템이 대기 중인 상담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연결해줌으로써 전화연결이 쉬워졌다"고 밝혔다.

### 페트병 맥주, 대용량이 오히려 비경제적

페트병 맥주의 경우 대용량 포장제품보다 소용량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하이트와 오비맥주에서 제조하는 4개 제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트병 포장의 경우 모두 대용량제품의 단위가격이 소용량제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페트병 1.6ℓ 포장의 100ml당 단위가격이 1ℓ 포장의 단위가격보다 7~11원 높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명이다. 이에 비해 유리병 포장의 경우엔 4개 제품 모두 용량이 커질수록 단위당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단위당 가격이 비싸지는 가격역전 현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비자들은 대용량 제품이 무조건 소용량 제품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위당 가격을 반드시 확인한 뒤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손해액 575억원

전국 주요 시도의 주유소가 주유기 오차를 통해 지난해 575억원 가량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서울 지역의 오차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말 전국 491개 주유소가 사용하는 주유기 1,972개의 정량주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 지역 주유기의 평균 오차가 20ℓ당 -77.5ml로 가장 컸으며, 울산 지역이 오차 -36.5ml로 가장 적었다.

평균 오차는 20ℓ 당 -55.3ml로 소비자가 5만원(1ℓ 1,600원 기준)당 140원을 손해를 보는 셈

이고, 이를 연간 휘발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소비자가 575억원 정도 손해를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의도적으로 주유량을 줄이는 사례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기술기준 고시 개정안(4월 중순 시행)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2년 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 때 주유기의 오차를 ±20ml로 유지하도록 하고, 주유소는 검정 기관이 인정한 검정 결과만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새로 만드는 주유기에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토록 하고, 기존 주유기에 대해서는 유량계뿐 아니라 주유량을 조절하는 전자 장치도 봉인하도록 했다.

### 가격공개 대상품목의 89%, 가격 인하 효과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 정보 제공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대상품목 가운데 89%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개된 생필품 가격

정보의 한 달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품목 64개 가운데 57개(89.0%)의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가격이 인상된 품목은 6개(9.4%)에 불과했고, 가격변화가 없는 품목은 1개(1.6%)였다. 특히 세제류가 평균 37.9%로 가격인하율이 가장 높았으며, 참치캔과 샴푸도 각각 33.3%와 27.2%로 가격인하폭이 컸다. 이 밖에 밀가루, 설탕, 햄, 치약, 생수 등의 품목도 10% 이상 인하됐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업체간 판매가격이 비교·공개되면서 업계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가격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중 '42인치 이하 TV' 제외

오는 4월부터 전력 소비가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42형(화면 대각선 길이 42인치 또는 107cm) 이하 TV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

과 대상을 확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대형 에어컨·드럼세탁기·냉장고·TV에 대해 올 4월부터 5%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부과할 계획이어서, 이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은 TV의 경우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인 대형 TV다. 다만 디지털 TV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이더라도 42형 이하 TV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에어컨·드럼세탁기·냉장고 등의 과세 대상은 입법예고 때보다 강화됐다.

대형 에어컨 전력소비량이 월 370kWh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400KWh 이상 에어컨을 대상으로 삼았었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가 가산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예컨대 소비전력이 많은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는 경우 세금 부담이 13만원 늘어나게 된다. ■

## 식품뉴스

### 2~3년 숙성 된장, 최고의 맛과 품질 지녀

한국식품연구원 구민선 박사팀은 '장기 숙성 전통 된장의 특성 규명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역에 상관없이 2~3년 숙성된 된장이 생리활성기능은 물론 관능적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전 지역의 전통 된장을 수집해 숙성기간에 따른 된장의 맛과 향미 특성 및 생리 활성의 변화를 추적 실험한 결과, 숙성 3년까지는 구수한 냄새와 감칠맛이 증가하였지만 5년 이상 숙성된 된장의 경우 후미의 신맛, 쓴맛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숙성기간별 된장 향미성분을 추출해 우리나라 고유 된장 맛과 향의 특성 확인, 대장암·유방암

등의 억제요소 규명, 조골세포 촉진 및 파골세포 활성 억제를 통한 된장의 골다공증 예방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된장의 고유한 맛을 계승하고 상품화로 연결시키면 산업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영지·로열젤리 등 7개 품목, 건강기능식품서 "제외"

영지 버섯과 로열젤리, 자라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영지, 운지 버섯 등 버섯가공식품, 로열젤리 가공식품, 자라 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등 7종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해 원료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며, 앞으로 버섯이나 로열젤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 인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제품별

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녹색채소 먹을수록 항암효과 커져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팀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항암 효과는 녹색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채소만 잘 챙겨먹어도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녹색 잎이 많은 채소를 즐겨 먹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커피·녹차 속 카페인, 뇌암 억제 효과

커피나 녹차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악성 뇌종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경과학센터 이창준 박사팀은 경

상대 강상수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인하대, 미국 에모리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카페인이 뇌암(Glioblastoma) 세포의 움직임과 침투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카페인이 뇌암세포의 활동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내 칼슘 수용체인 'IP3R'의 작용을 억제해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서도 카페인의 뇌암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뇌암 세포의 전이를 카페인이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 밝힘으로써 앞으로 뇌암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연구팀은 향후 임상실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초등학생 10명중 8명, 과일·채소 섭취 부족

초등학생 10명중 8명은 과일이나 채소를 권장수준보다 부족하게 섭취해 영양불균형이 초래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초등학교 5학년 2천7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권장섭취 횟수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은 17.8%에 그쳤다. 10~12세의 경우 과일 하루 권장섭취 횟수는 2회, 채소는 5회, 우유 및 유제품은 2회인데 어린이 대다수가 하루 권장섭취 횟수보다 적게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컵라면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어린이는 각각 69.8%, 74.6%, 47.9%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과일이나 채소를 적정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할 수 있어 영양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가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의 음식섭취 관련 지도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과자류 트랜스지방은 감소, 포화지방은 증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지방성분인 트랜스지방이

비스킷 등 과자류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또 다른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상위 10개 식품업체의 134개 과자류에 대해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 함량은 줄어들었지만, 포화지방 함량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넛의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함량은 2005년 평균 3.3g에서 지난해 평균 7.9g으로 2배 이상 높아졌고, 일부 제품에서는 도넛 약 1개에 무려 16.3g의 포화지방이 검출돼 성인 하루 포화지방 섭취권장량에 육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포화지방으로부터 얻은 열량이 하루 총섭취열량의 10%(성인기준 22g)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트랜스지방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대체 지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포화지방이 도리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포화지방 저감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봄이 오면

이 세 기 / 소설가 · 언론인

나는 아침마다 딸아이의 차를 얻어 타고 DMC에 있는 사무실에 나간다. 한데 딸의 차는 요일제에 묶여 있어서 목요일에는 주로 그린버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지하철은 수색역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갈아 타야하기 때문에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상암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는 것이 번거롭지가 않았다.

그 날도 성당과 시립병원을 지나 학생들이 많이 내리는 송실고 앞에서 버스가 섰을 때였다.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나는 아직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와 강아지를 보았다. 할머니는 작고 깡마른 체구에 여든 살쯤 되어 보였고 강아지는 밤색 푸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할머니는 맨 시멘트바닥에 그냥 앉아있는데 비해 푸들은 하얀 수건을 깔고 있었다.

그날 이후 버스를 타는 목요일이면 나는 그 길목에서 할머니와 강아지를 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강아지 등을 쓰다듬거나 입에다 먹을 것을 넣어주기도 했다. 할머니가 강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마치 친손자처럼 강아지를 돌보는 할머니 모습이 내내 잊히지 않았고 연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내

어머니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저처럼 정성껏 돌봐주셨다.

그 다음 목요일에도 할머니와 푸들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차창 너머로 그들을 만나지만 할머니와 강아지는 아침마다 그곳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을 구경하는 모양이었다. 언제부턴가 한가롭게 바람을 쐬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이 나에겐 큰 낙이 되었고 버스를 타는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버스에 오르면 나는 할머니와 강아지를 내다보기 위해 오른쪽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승객들이 많아서 창밖을 잘 내다볼 수 없을 때도 할머니의 보라색 조끼차림과 밤색 푸들을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었다. 할머니는 아침에만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오는지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오후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팔월이었고 할머니와 강아지가 나와 있기엔 너무나 무더운 여름 한낮이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와 강아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차양이 없는 가게 앞은 비를 피할만한 장소는 아니었다.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왠지 서운했다. 창에다 얼굴을 붙인 채 근처 계단이나 남의 집 지붕아래 어린

푸들을 안고 서있을 할머니 모습을 눈으로 찾아 더듬었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월요일이 되자 나는 딸이 태워주는 차에 오르면서 송실고 쪽으로 돌아서 가자고 말했다. 딸은 왜냐고 물었다. 딸의 직장은 여의도였고 가뜩이나 상암까지 들렀다 가는 것만도 바쁜데 출근시간에 언덕길로 돌아서 가자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혼자서 버스를 타는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주 목요일에 할머니와 강아지는 그곳에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하고 창밖에 대고 소리칠 뻔했다.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정말 이제는 정이 들어서 상대방도 나를 알아볼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마음 같지 않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쫓기듯이 그곳을 지나쳤다. 나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처리할 일들이 많았다. 언젠가는 내려서 할머니와 강아지를 만나보아야지, 만나보아야지. 그렇게 봄여름 가을이 지났다.

할머니와 강아지는 지난 12월에도 그곳에 있었으나 어둡고 음산한 겨울이 되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줄 알면서도 막상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엉뚱한 걱정이 앞섰다. 어딜 갔을까? 이사를 갔나? 할머니가 아픈가? 할머니는 가족이 있나, 없나? 할머니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강아지는 누가 돌보나? 할머니는 너무 쇠약해 보였다. 초라한 행색으로 보아 돌봐줄 가족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강아지와 단둘이 외롭게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엔 딸에게 할머니와 강아지를 찾아보면 했다. 크게 도와주진 못할망정 할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딸아이는 웃었다.

“어떻게 살다니? 할머니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지금은 추워서 못나오지만 날씨가 풀리면 다시 나오실 거예요.”

하긴 나는 내 식대로 해석해서 할머니와 강아지를 걱정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내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만약 진짜 할머니 사정을 알게되면,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병들고 불행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책임지고 돌봐 줄만 한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너무 깊이 관여하려드는 나 자신이 무색해진다. 그렇다. 봄을 기다리자. 할머니와 강아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올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길목에서 만난 할머니와 강아지에 대한 삽화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머잖아 다가올 봄을 기다리기로 한다. ■



조선일보신춘문예 소설당선, 현대문학소설추천, 서울신문논설위원, 영상자료원 이사, 영상물등급위 위원, 저서: 창작집 『바람과 놀며』, 『그다음은 침묵』, 이화여대총장 『김옥길평전』, 『명무 강선영평전』, 한국예술가 100인 『빛을가꾸는 에피큐리언』, 『예술을뚫고 들어간 사람들』, 『한국 YWCA 80년사』 등 다수, 현재 차범석연극재단 이사, 영상물등급위 영화예심.

## 생활 속의 원자력 ②

- 피부미용 · 음료 제품 생산 등에도 활용 -

지난 호 '생활 속의 원자력①' 편에서 원자력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 방사선 조사로 만든 녹차화장품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필수요소인 화장품에도 이용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웰빙 열풍으로 녹차가 인기를 끌면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피부암 예방과 노화방지 효과로 녹차화장품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녹차의 천연 성분 그대로 화장품에 담은 작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녹차 추출물이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녹차의 엽록소가 산화되어

색이 검게 변하게 된다. 이에 녹차 추출물에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엽록소를 제거, 무색무취 상태의 원료를 만들어 별도의 색소 제거 공정 없이 녹



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콜마와 공동으로 개발한 녹차화장품

차 성분을 기존 제품보다 100배 정도 더 농축시킨 녹차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이 개발되었다.

### ◆ 방사선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

또한 각종 환경공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피부질환, 날씨가 건조해 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도 방사선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사선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느릅나무와 어성초 추출물에 수용성 고분자를 섞어 방사선을 쬐면 알로에 같은 젤 타입으로 변한다. 보통 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데 방사선을 이용하면 화학약품 없이 아토피 치료용 젤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살균 기술로 무균 처리해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이 젤 형태의 치료제는 상처에 약효성분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수분증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긁어서 생기는 2차 감염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아이들이 피부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 감마선 조사기술로 만든 웰빙 배식초

세 번째로는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해 웰빙 음식을 만들 수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식초 '배로美' '포도배로美'가 그것으로 멸균이 완벽하게 이뤄진 웰빙 식초이다.



이는 식초에서 완전 멸균이 대단히 중요한데 식초가 다 되고 나도 그 속에는 수많은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O-157과 같은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 온갖 균이 섞여 있다. 이를 나둔 채 상품을 만든다면 상하기 쉬운데 이때 배식초의 맛이 가장 좋을 때를 골라 감마선을 쬐어주는 것으로 그 속에 있는 균을 모두 죽게 하며 식초 특유의 안 좋은 맛을 내는 락트산을 분해해 함량을 크게 줄이는 역할까지 한다. 반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기능은 50%이상 높일 수 있다.

### ◆ 맥주의 양을 체커하는 방사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시는 맥주 생산에도 원자력이 이용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레벨체커로 맥주생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설비다. 레벨체커는 맥주가 담긴 병이나 캔이 라인을 지나갈 때 방사선을 병에 투과시켜 투과량에 따라 정상

용량 이상이 담겨 있으면 통과, 덜 담겨 있으면 라인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없다면 우린 가끔 용량이 부족한 맥주 캔이나 병을 받아들고서 마실지 반쯤할지 고민하며 난감해 할지도 모른다.이외에도 우주식품 개발, 비파괴 검사, 유해물질 분해, 미술품 검사 등 우리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 ● 참고 ●

###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

올해 1월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농산물이나 완제품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발표된 바 있다.

방사선 조사는 방사성동위원소인 코발트60 (60Co)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식품에 쬐이는 방법으로 주로 식품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식중독균 등을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환자식이나 우주인을 위한 우주식의 살균 소독에 이용되며 국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 방사선조사식품 표시방법

- 완제품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 방사선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일 경우 원료명 옆에 괄호로 "방사선조사"로 표시
  - ※ 예 : "양파(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 마늘"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글 : 편집자 주/자료제공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5°C Down의 날까지

본회 경기도지부 오산시지회에서는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내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환경체험글짓기” 공모를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다음은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역사상 가장 더운 해라고 떠들썩했던 2007년 여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청소년들을 모아 북극에 가는 캠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표를 뽑기 위해 1.5°C Down 캠프를 개최했다. 내가 환경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가졌을 때가 바로 이 캠프를 다니고 나서였다.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지구의 온도가 지금처럼 계속 오를 경우, 미래 지구의 온도를 실현해 놓고 공 안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 해보는 활동이었다. 공의 안은 여름에 버려진 차안의 온도같이 매우 무더웠다. 30초쯤 되었을까? 나도 몰랐던 사이에 얼굴에 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열심히 흐르기 시작했다. 땀이 온몸을 적실만큼 흘

렀을 때 캠프에서 나누어준 온도계를 보았다. 온도계는 무려 46°C를 기록하고 있었다.

과연 인간은 이런 지옥 같은 온도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은 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다.

나는 작년과 올해에 개최된 오산천 생태 환경축제에 꾸준히 참가했다. 축제에 가게 되면서 ‘환경은 노력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다. 말 그대로 오산천이 ‘변화’ 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생명체 보기가 매우 힘들었던 오산천에서 얼굴이 비칠 만큼 맑은 물이 흐르고 여러 종의 물고기가 보이

기 시작했다. 이런 오산천의 변화를 보면서 ‘환경은 노력만 하면 다시 돌아와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같은 시간 오산천에서 개최되었던 축제 중에서 참가한 또 하나의 환경 축제가 오산천 환경 자전거 축제였다.

자전거를 타면서 오산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축제였는데, 요즘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자는 환경 보전 의식과 오산천 변화를 소개하는 목적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축제가 내게는 너무나 새로웠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환경축제를 체험하게 되면서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곧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환경 보존의 적은 바로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몇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이 교통 분야이다. 승용차 1대가 10km를 왕복 출근할 경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무려 4kg이다. 이와 반대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의 배출량을 보면 버스는 자가용의 1/8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며 지하철은 자가용의 1/140의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이 측정값을 보면 과연 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지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변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말해 보려고 한다. 이 정보를 접하면 ‘정말 그런가?’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4명의 가족들이 서로 1분의 샤워 시간을 줄이면 무려 6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두어 대기 전력을 90%를 줄이면 이산화탄소를 자그마치 89kg나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몇 번 더 손을 쓴 것인데, 이것이 50~100kg이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이 정보를 보면서 과연 몇 g도 안 되는 가벼운 기체를 50kg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쉬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환경 축제를 다니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면 등을 돌렸던 지구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노력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자.

(운천중학교 2학년 5반 조이선)

## 봄 향기 찾아 멋스러운 한옥마을로!

서양식 주택에 익숙하지만, 전통의 멋과 안락함을 주는 한옥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오래된 나무가 주는 편안함과 햇살 가득한 마당 등이 주는 정신적 풍요로움 때문일 것이다. 멋스러운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고풍스런 정취와 봄 향기를 느껴보자.

### 봄이면 매화향기 그윽하게 퍼지는 고가마을 (경남 산청군)



지리산이 빛어낸 청정골이라는 경남 산청군에 가면 전통 고가마을인 '남사예담촌'이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다면 경상남도 산청에는 남사마을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남사예담촌은 양반마을, 전통 한옥마을로 유명하다. 남사예담촌의 '예담'은 옛스런 담이란 뜻을 가진 말이지만 그 안에는 담장 너머 숨어있는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 또는 옛날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발견해보시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봄날에 가면 좋은 것은 마을 안에 7백년 된 원정매의 후손 매화나무가 꽃을 피워내 여행객들을 선경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고풍스런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단속사지의 정당매, 산천재 앞뜰의 남명매까지도 만나본 뒤 대원사, 내원사, 구형왕릉 등 문화유적지를 두루 만나보면 산 높고 골 깊은 산청의 후덕함에 꼭 젖어두고 만다.

### 거대한 기둥어리인 월출산 자락 고택에서의 하루, 구림마을 (전남 영암군)



일본 아스카문화의 시조인 왕인박사와 풍수지리 대가인 도선국사를 배출한 구림마을

은 거대한 기둥어리인 월출산을 병풍삼아 기품 있게 자리한 마을 내 고택에서 뜨끈한 구들장을 지고 하루를 보낸다면 오묘한 산의 정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라'란 의미의 안용당은 340년 역사를 품은 한옥민박집으로 서까래와 황토구들장을 보면 소박한 한옥의 정서에 꼭 빠져들게 된다. 장독대, 산책로, 호수가 울창한 숲과 함께 어우러져 근처가 거대한 삼림욕장라고 불려도 지나치지 않다. 450년 동안 대동계의 집회장 소인 대동계사는 단정하고 규모가 커서 단체여행객이 머물기에 적합하다.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가 가까이 있어 답사여행지로 손색이 없으며 짱뚱어탕, 갈낙탕 등 남도별미는 영암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 서울특별시지부

####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강남구지회(회장 곽한옥) 회원 15명은 지난 1월 14일과 28일 강남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광진구지회(회장 이옥순)에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회원 10명은 이주여성의 쉼터 '벗들의 집', 독거노인들의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 중증장애인시설 '작은 예수의 집', 28일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하늘이네'를 각각 방문해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전달하



며 위로 격려했다.

#### 시무식

은평구지회(회장 이상옥)는 지난 1월 29일 본회 3층 강당에서 지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은평구지회 시무식>을 갖고 회원간 화합을 바탕으로 주부교실 발전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회원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 부산광역시지부

#### 신년회 및 모니터교육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1월 12일 썬 뷔페에서 임원 및 회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0년도 전국주부교실 부산시지부 신년회>

를 개최해 지난해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시간을 갖고, 참석한 회원 모두가 지회 발전 및 자원봉사단체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27일에는 시지부 강의실에서 물가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2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물가조사 모니터교육을 실시했다.



####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과소비 추방 캠페인

지난 1월 27일 회원 30명이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



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설 명절을 대비해 우리 농산물과 재래시장 애용 및 설 명절 건전하게 보내기 등 과소비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신년회 및 임원회의**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지난 1월 6일 호텔 인터볼고 엑스포 그랜드홀에서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고, 15일에는 시지부 사무실에서 이사 및 운영위원 16명이 모인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해 사무실 이전 및 정기총회 등 2010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 시간을 가졌다.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지난 1월 22일 회원 36명이 칠성시장과 2·28중앙공원에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계도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신년회 및 월례회의**  
 시지부(회장 한혜자)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임원 9명이 인근 음식점에서 신년회 겸 월례회의를 개최해 2009년도 사업평가 및 2010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며 회원간 결속을 다졌다.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9일까지 내 집 앞 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회원 7명이 1월 26일 계양구청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남구지회(회장 이은자)에서는** 지난 1월 11일 남구청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신년회 노인어르신 떡국 대접하기' 행사에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남동구지회(회장 김연숙) 회원 13명은** 매주 수요일~금요일 중앙 길병원에서 의료행정 서비스 보조활동을 실시했고, 회원 12명은 매주 월요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식사 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서구지회(회장 이민자) 회원 10명**

은 지난 1월 11일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 300명의 중식제공 및 가정용 도시락 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화군지회(회장 고영숙) 회원 15명은** 독거노인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화읍 신문리 역에서 김장철 새우젓 판매와 설 가래떡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으로 지난 1월 5일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5분의 가정에 연탄 1,000장씩을 전달했다.

**지회장 이·취임식**  
**웅진군지회(회장 김묘숙)에서는** 지난 1월 26일 지회 사무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웅진군지회를 이끌어 오신 현경숙 회장에 이어 웅진군 지회장을 맡게 된 신임 김묘숙 회장은 취임식에서 지회 발전과 함께 주부교실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봉사자가 될 각오를 다지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광주광역시지부**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1월 19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각화 도매시장에서 원산지표시 감시 및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활동을 전개했다.

**제27기 주부대학 수료식**  
 2월 25일 신양파크호텔 1층 에메랄드홀에서 제27기 주부대학 수료식을 개최했고, 자기발전에 매진한 수료생 115명은 안순일 광주시 교육청 교육감과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지부**

**시내버스 환경개선을 위한 모니터단 발대식**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수입금 확인업무를 대전시로부터 위수탁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시민확인단 20명을 결성해 집합교육, 현

장 실습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1월 13일 대전주부교실 2층 강당에 <시내버스 환경개선을 위한 모니터단 발대식>을 가졌다. 시민확인단 20명은 앞으로 1년 동안 13개 버스에 1일 1명씩 순환근무를 통해 수입금 정산작업 관리감독, 수입금 집계, CCTV 확인 등을 통해 철저한 현금수입금을 관리한다.



**제22기 간병인 교육**  
 지난 1월 26일 대전부부교실 2층 회의실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간병활동에 뜻이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명을 대상으로 <제22기 간병인 교육>을 실시해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앞장섰다.



**울산광역시지부**

**시무식 및 신년회**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지난 1월 6일 시지부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및 지회장 등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2010년도 시무실 및 신년회>를 갖고 회원 화합을 바탕으로 주부교실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화교실 및 그린여성자전거교실**  
 매주 월, 수요일 시지부 문화교실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신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교실과 수학교실을 운영해 배움의 기회를 통해 행복한 노년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 드렸다. 또한 월요일~금요일 동천체육센터에서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론 및 실기교육을 병행하는 그린여성

자전거교실을 운영해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으로 주부들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비롯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경기도지부

'농산물지킴이' 모범업소 현판식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지난해 21개 시·군 지회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유도를 위한 계도 및 조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는 모범업소 30곳을 선정했다. 1월 8일~13일 각 지회별로 선정된 모범업소 30곳에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란 현판을 만들어 각각 전



달하며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에 앞장섰다.

명예감시원 활동 및 각종 캠페인 전개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에서는 첫째, 셋째, 다섯째 수요일 명예물가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3명이 지역 내 위치한 12개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59개 주요생필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및 유통업체 물가조사를 실시했고 둘째, 넷째 수요일에는 물가조사요원 10명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파괴 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 회원 12명은 지난 1월 25일~29일 인근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계도 및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양주시지회(회장 이용숙) 회원 10명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지난 1월 26일~27일 중앙시장과 제일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전개해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오산시지회(회장 김형례)는 지난 1월 2일 임원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해 2010년도 사업 방안 등을 논의했고, 물가 모니터 요원 10명은 25일~29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소 계도 및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27일에는 회원 15명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오산 중앙전통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에서는 지난 1월 19일 주부교실 회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 35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감사보고 및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고, 20일 회의실에서 회원 6명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5일에는 명예감시원 9명이 용인 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주군지회(회장 주금숙)는 지난 1월 17일 정기월례회를 개최해 2010년도 사업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1월 25일 회원 10명이 여주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상인 및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구리시지회(회장 정순)는 지난 1월 6일 회원 10명이 토평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제공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7일 회원 4명이 수택동에 거주하고 계신 저소득층 독거노인 3명에게 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은 전달했다.



과천시지회(회장 양명희) 회원 5명은 지난 1월 20일 구세군 실비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부림동 보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매장을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처로 제공해 중·고등학생 2~3명을 매장운영 보조로 활동하게 하였고, 회원 3명이 매일 교대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 0세~8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있다.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 회원 12명은 지난 1월 12일 중원구 상대원2동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시흥시지회(회장 김금순)는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의료생활솔향기 봉사단과 <독거노인 봉사단협약식>을 갖

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장도희) 회원 10여명이 지난 1월 4일 호계 노인복지관, 12일 동안 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고, 1월 4일~8일, 18일~22일 10일간 회원 60명이 아나바다 매장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이 기증한 재활용 용품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연말 모자가정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평택시지회(회장 정희주) 회원 16명은 지난 1월 11일 평택시부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50여 세대에 무료반찬을 제공했고, 21일에서는 차상위 가정 12세대에 난방기구, 식료품 등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29일에는 회원 22명이 평택시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400여분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1월 2일~31일 회원 60명이 교대로 북부여성회관에서 북카페를 운영해 다양한 도서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문화활동 기회제공 및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들은 지난 1월 5일과 26일 태백노인전문요양원, 7일과 21일 장애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월 9일 장성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가노인 가정을 방문해 미용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지부**

**충북 지회장단 회의**  
도지부(회장 최광옥)에서는 지난 1월 24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12개 지회 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충북 지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도지부와의 연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등을 통해 도지부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봉사활동**  
청주시지회(회장 권지순) 회원 30명은 지난 1월 12일 농촌기술센터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했다.

괴산군지회(회장 전해옥) 회원 4명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청천재활원을 방문해 다과를 대접하며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 회원 5명은 지난 1월 20일 원남면 주봉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40분께 썩 뚫뜨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남도지부**

**원산지표시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조춘자)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5명이 지난 1월 14일 공주시 산성동 재래시장에서 ‘소비자에게는 믿음, 생산자에게는 희망을’이란 구호 아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섰다.



**2010년 신년교례회**

지난 1월 25일 도지부 운영위원, 시·군 지회장 30여명이 중경회관에 모여 <2010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해 지난해 사업성과 보고 및 평가,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및 지회 간 단합으로 충남도지부 발전을 도모했다.

**봉사활동**

연기군지회(회장 황명숙) 회원 20명은 지난 1월 28일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 및 시설 내·외부 청소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북도지부**

**정기총회 및 노인소비자교육**

도지부(회장 최원자)에서는 지난 1월 4일 하나대투증권강당에서 운영위원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2010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및 장학금 전달**

김제시지회(회장 김보배) 회원 10명은 지난 1월 8일 노인요양원인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

한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는 지난 1월 1일 신년 새해를 맞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가래떡을 준비해 군내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무주군지회(회장 김순덕) 회원 10명은 1월 20일 군청 뒷마당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1일 찻집’을 열고, 회원들과 군민들의 참여로 이웃의 따뜻한 정을 실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완주군지회(회장 최영숙) 회원 3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교대로 삼례읍사무소에서 노인 20여명의 건강을 위해 귀반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지회(회장 양순옥) 회원 10명은 장수읍 노하리회관(경로당)을 방문해 40여분의 노인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하며 쓸쓸한 노년

의 삶을 위로했다.

진안군지회(회장 한은숙)에서는 지난 1월 29일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진안제일고등학교를 찾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모범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전라남도지부**

**시·군지회 순회 간담회**

도지부(회장 이송자)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22개 시·군 지회를 직접 방문해 지회 상황 및 추진 사업을 논의하는 <22개 시·군 지회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 진취적인 사업안 추진과 함께 보다 나은 주부교실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봉사활동**

광양시지회(회장 신행숙)는 지난 1월 5일 한우명가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100여명을 초대해 떡국을 대접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12일과 21일 옥동경로당과 상평경로당을 각각 방문해 어르신 50여명을 위한 경로 위안잔치를 마련해 음식을 대접하며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 드렸다.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 회원 20

명은 1월 5일과 27일 순천선혜학교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희망의 계절학교'를 방문해 자활에 힘쓰고 있는 장애 아동들의 1일 보듬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격려했다.

**여수시지회(회장 이안자)** 회원들은 지난 1월 22일 쌍봉노인복지관과 동여수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고흥군지회(회장 박민자)**는 1월 5일 남해 보리암에서 임원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신년 워크숍>을 개최해 지난해 사업보고 및 평가, 2010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영광군지회(회장 정찬자)** 회원들은 1월 14일 영광노인당을 방문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독거노인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영암군지회(회장 노영미)** 회원 17명은 1월 1일 삼호 현대호텔에서 신년 첫날 영암호 해맞이 축제를 보기 위해 영암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무료로 떡국을 제공하며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장흥군지회(회장 채은아)** 회원 68

명은 지난 1월 7일 군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불우이웃 129세대에게 김장김치를 담가 각각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경상북도지부**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경산시지회(회장 우옥순)**에서는 지난 1월 2일 소년소녀가장 1명을 선정해 성금을 전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 격려했다.

**문경시지회(회장 이명순)**는 매주 금요일 회원 6명이 문희선교원 노인 대학을 방문해 중식배식 도우미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도 매주 월요일 회원 35명이 북구 학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독거노인 24명에게 식사배달과 배식 후 세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월 20일에는 회원 15명이 노인요양시설인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요법 소개 및 다과를 대접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고령군지회(회장 정숙자)** 회원 8

명은 1월 15일 중증환자 및 장애인 시설인 우곡면 소재 '들꽃마을'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군위군지회(회장 김은주)**는 1월 26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 회원 4명은 1월 20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30일에는 회원 14명이 군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가정 3가정, 부자가정 2가정을 방문해 다과를 대접하며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양군지회(회장 박정자)** 회원 6명은 1월 3일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삼삼노인회관을 방문해 다과를 대접하며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남도지부**

**원산지표시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이인숙)** 회원 56명은 지난 1월 14일~15일 이틀간 마산 어시장, 신마산 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활동과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전단지외 원산지표지판 등을 배포하며 수입농산

물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섰다.

**봉사활동**

**산청군지회(회장 성금순)** 회원 6명은 지난 1월 6일 산청노인 전문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50명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말벗이 되어 드렸다. 한편, 1월 12일~13일 회원 12명이 황매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여성단체 주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연찬회'에 참석해 응급처치 특강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정기총회 개최**

**도지부(회장 김영희)**에서는 지난 1월 11일 뉴월드뷔페에서 이사, 운영위원 등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해 2009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와 함께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한 후 회원간 결속을 다짐하며 주부교실 발전을 기원했다.



**중앙회 소식**

**등산반 제23차 정기총회**



1987년 창단한 분회 등산반(회장 최순숙)이 지난 2월 19일 3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사업결산 보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원선임 등의 안건 승인과 함께 지난 한 해 등산반 발전에 애써주신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자축하는 의미로 다과시간을 가지며 회원간 결속을 다졌다.

**등 정**

**경상남도지부 김점숙 신임회장 취임**



경상남도지부는 1월 28일 그동안 도지부를 이끌어 오셨던 이인숙 회장의 뒤를 이어 김점숙 회장이 제3대 경상남도지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점숙 신임회장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고, 경남도지부 운영위원, 기획부장을 거쳐 부회장을 역임해오다 이번에 도지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회장은 주부교실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로 마산시장 표창장,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공로패, 경상남도 교육감 감사장 등을 받았다.

**경북 성주군지회 사무실 주소 변경**

경상북도 성주군지회 사무실 주소가 성주군 성주읍 경산 8리 697-11번지 한국화장품 2층으로 변경되었다. (전화번호는 기존 번호와 같음)

## 주부교실게시판

### ■ 세계 물의 날 기념 대토론회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 서는 유엔(UN)이 정한 제18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올해 주제로 선정된 “건강한 세상을 위한 깨끗한 물(Clean Water For a Healthy World)”에 맞춰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3월 22일(월) 13:30~16:3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 국제회의장

### ■ 제74기 주부대학 수료식 및 제75기 신입생 모집

주부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주부대학의 제74기 수강생들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짐에 따라 제75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74기 주부대학 수료식
  - 일 시 : 2010년 3월 26일(금) 15:00
  - 장 소 : 중구 구민회관 1층 강당
- 제75기 신입생 모집
  - 개 강 일 : 2010년 4월 5일(월) 10:30
  - 교육기간 : 4월 5일~9월 28일(6개월)
  - 접수기간 : 2월 16일~3월 31일(선착순 마감)
  - 문 의 처 : ☎ (02)2265-0637 · 3628

### ■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택배 이용 가능  
(세탁접수·처리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
- 접수문의 : (02)2265-5870, 2273-6300 ·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http://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http://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

